

종단 정체성 확립 · 교육기관 통폐합 화두로

조계종 중앙총회 제205차 임시회가 남긴 과제는?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는 3월 17일 제205차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이번 중앙총회에서는 조계종의 수의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에 대한 기반 법령이 마련됐다.

이번 사업부 개설은 그동안 종단 재정의 80%에 달하는 분담금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려화문인해 분담금을 내는 개별 사찰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에서 추진됐다.

다. 만약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할 시 외부 영리법인을 두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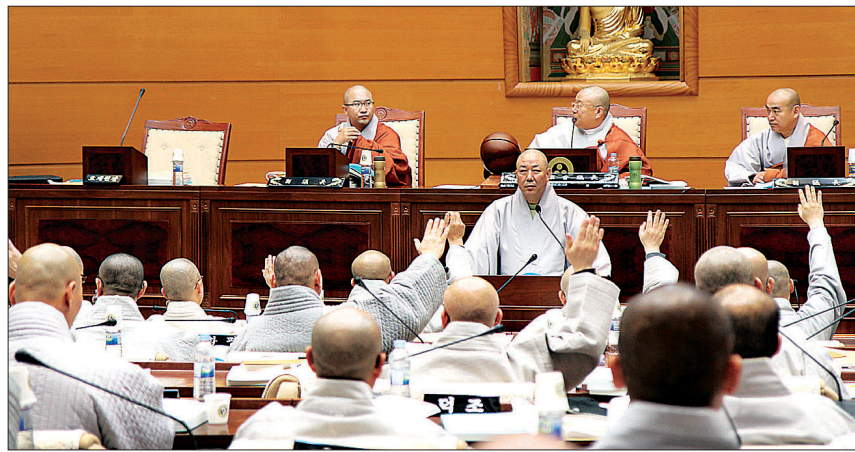
기획실 측은 "현행 세무행정에서는 비영리민간 단체라도 고유목적의 기본 수익사업은 허용하고 있다. 향후 수익사업 필요시 법인과 사업체 등을 고려해 양명함 중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중창주의 위법행위 시 권한을 제한하는 사찰법 개

종단 수익사업에 우려목소리 중창주 권한 제한에 논란 예상 학인 10명 미만 교육기관 6곳 종립대 · 승가대 연계 요청도

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중창주는 사찰을 창건해 공찰로 등록하거나 사지를 복원해 공찰로 등록한 경우 그 공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중창주는 해당 스님이 입학 때까지 주지를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개정 사찰법에 따르면 중창주가 타종단에 가입하거나 탈종한 경우, 중창주가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창주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사찰법 개정에 따라 현재 중창주인 스님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총회에서 법안 처리에서도 중창주 권



제205차 임시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 처리를 두고 총회의원 스님들이 거수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를 제한하는 범위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 중창주 권리 상설 조건에 공권정지 징계도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남 스님은 총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최근 사실사함을 공찰로 등록한 스님들이 많은데 종단과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총회 종책질서에서는 교육기관 개편에 대한 과제도 도출됐다.

주경 스님은 교육원 질서에서 출가자 노동화와 감소 현상을 짚고 "금년 행사 교육원 임박자가 82명에 불과한데 기본 교육기관이 17곳으로 최소한의 입학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비상상황"이라며 "당장 출가자 확대를 통한 입학자 충원이 쉽지 않은 일기에 입학정원 축소나 교육기관 통폐합을 통해 교육환경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원의 2015년 2학기 기본교육기관 학인 현황을 보면 학령당 입학정원인 10명을 충족하는 기관은 17곳 중 6곳(통도사, 운문사, 중앙승가대, 동국대서울, 동국대경주, 기본선원)에 불과했다. 한 학년에 3명 이하의 학인 스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도 6곳에 달했다.

선광 스님은 "특히 중앙승가대도 학생 감소가 심각하다. 동국대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을 충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제정 스님은 "타종교의 학교들과 같이 종립대와 지방강원을 캠퍼스처럼 연계하고 특수학과를 유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교육내실화 측면에서 교육기관 통폐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종 교육기관 및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3월 24일 정기총회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3월 24일 오후 1시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법륜사에서 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제 · 개정안과 지회구역 확정, 사업 승인, 원로의원 추대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비구니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18차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 제11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3월 18일 법륜사에서 총회준비위를 열고 17개 지회 지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관 법륜사는 총회날인 3월 24일 총회에 앞서 회관 1층에 '카페 메타(Metta)'를 개소한다. 카페 메타의 수익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02)3411-8103 노덕현 기자

새봄맞아 불교 인문학 강좌 '붓물'

서울 법륜사 '동·서양 만남' 미붓아카데미 '과학과 불교'

만물이 소생하는 봄, 다양한 주제의 불교 인문학 강좌들이 대중을 찾아간다.

먼저, 송광사 서울본원 법륜사는 오는 4월 '인문 강좌'와 '미술관나들이'를 특강으로 진행한다.

인문강좌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주제로 안상환 서울대 독문과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한다. 안 교수는 '토마스 만의 소설과 한국 소설가 이청준(4월 7일)', '쇼펜하우어와 불교(4월 21일)'를 주제로 두 차례 강의한다.

4월 14일과 28일에는 김경아 강사(한국종합예술학교)의 '미술감상' 특강이 진행된다. 법륜사 주변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선재센터, 갤러리현

대, 국제갤러리, 브레인 팩토리,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무비이다방 등 미술공간들을 관람하고 현대 미술의 이론과 실체를 만난다.

각 강좌별 수강료는 3만원이며 두 강좌를 동시에 수강할 시에는 5만원으로 할인된다. (02)733-5322

지난해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을 주도했던 미붓아카데미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함께 올봄 상반기 강좌로 '불교 안의 과학, 과학 안의 불교(총12강)'를 기획해 오는 4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채식요리 전문점 '마지(MAJI)'에서 매주 금요일 강의를 진행한다.

과학 전반을 주제로 잡은 만큼 다루는 분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부터 자연과학 · 천문학 · 양자역학 · 생명과학 · 의학까지 매우 다채롭다. 강사로는 이상현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양형진 고려대 과학기술대학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교수,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유선경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철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강좌에 대해 미붓아카데미 측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실험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불교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현대과학을 통해 드러낼 것이며, 현대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불교를 통해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붓아카데미의 '불교 안의 과학, 과학 안의 불교' 강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총 강의 참가회비는 20만원이다. (010)5575-7010, (010)4096-139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개하는 봄꽃, 산사서 즐겨봐요"

전국 47개 사찰,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바야흐로 봄이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봄꽃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곳곳에서 유채꽃, 매화 등 아름다운 꽃들이 고운 자태를 뽐내는 이때, 고즈넉한 산사에서 봄 기운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호)은 3월 16일 전국 47개 사찰에서 실시하는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미담 서정주도 반한 고창 선운사는 동백꽃으로 유명하다. 선운사는 3월 25~27일 '시인과 함께하는 동백 시문학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동백숲 명상, 시인과의 시간 등이 진행된다. 또한 꽃길 포행을 하면서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요문화재가 많은 하동 쌍계사는 벚꽃 심리길이 아름답다. 쌍계사 벚꽃 심리길은 연인이 손을 잡고 걸으면 백년 해로 한다는 설화가 전해져 '혼례길'이

라고 불리기도 한다. 쌍계사 템플스테이는 4월 한 달간 매주말 1박2일로 참여 가능하다. 벚꽃길 트래킹과 차담, 단주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평창 월정사는 4월 22~24일 '새봄, 보궁 걷기'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새싹이 돋은 오대산 계곡을 따라 걷는 '선재길'은 겨우내 쌓인 마른 솔잎이 장관이다. 상원사부터 보궁까지는 길이 제법 험해 미끄러지지 않을 만한 신발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외에도 서울 진관사는 '새봄의 소리를 마음으로 보다', 경기도 금강정사는 '꽃피는 소리', 예산 수덕사는 '템플스테이 플라즈마 고향의 봄', 영광 불갑사는 '불갑사 봄바람 나빌레라', 장성 백양사는 '꽃이 피어 봄이 된다' 등 다양한 템플스테이가 전국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유가족이라도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3월 17일 '세월호 인양콘서트' 개최



세월호 참사 702일 째인 3월 17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세월호 인양콘서트'를 개최했다. 동한 스님의 회심곡 발원으로 행사의 막이 오르자 장내는 눈물바다가 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00여 일을 막 넘어선 3월 17일, 조계종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나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을 위한 인양콘서트를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 이하 사회노동위)는 3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예전시관에서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는 세월호 인양콘서트'를 진행했다. 행사는 사회노동위 동한 스님의 회심곡 발원, 종교인 대표 인사말, 미수습자 가족 인사, 위로 공연, 세월호 가족 합창단 공연 등 순으로 이어졌다.

동한 스님의 회심곡 발원이 시작되자 장내는 눈물바다가 됐다. 동한 스님은 미수습자 9명의 무사 귀환과 함께 "다시는 이 땅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길, 우리 아

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이어 불교계 대표 발원에 나선 사회노동위 도철 스님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나"면서 "정부의 비협조로 인양은 더디게만 진행되고, 미수습자들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불교계는 세월호가 조속히 인양되고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국회화자의평화실천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 수습인양위원회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박아름 기자

성각
33
독각을 품은
- 진귀 화두집 -

© 도서출판 왕산

드디어 출판되다..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진귀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教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 (석가불 품은 53집)
드디어 출판되다!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점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문의 1899-9532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점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문의 1899-9532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제 1 見 석가를 품다 | 제 19 見 참새집 | 제 37 見 자식인연 |
| 제 2 見 평은 초대장 | 제 20 見 병(病)든 부처 | 제 38 見 형제 인연 |
| 제 3 見 법(法)을 버리다 | 제 21 見 생화와 조화 | 제 39 見 도반인연 |
| 제 4 見 차 한 잔 | 제 22 見 직거래? | 제 40 見 부부인연 |
| 제 5 見 해인 삼매 | 제 23 見 묘해(妙慧) | 제 41 見 대방광을 화엄경.. |
| 제 6 見 창조와 표절 | 제 24 見 법은 무의(無依)다 | 제 42 見 왕(대통령) |
| 제 7 見 아부선사 웃다 | 제 25 見 천도(遷度)란? | 제 43 見 독각(獨覺)은? |
| 제 8 見 요지경 | 제 26 見 고구마 부처? | 제 44 見 <나> |
| 제 9 見 말 많은 석가? | 제 27 見 마음속 부처 | 제 45 見 대도(大道)란? |
| 제 10 見 히말라야 영화 | 제 28 見 개나리는 노랗다 | 제 46 見 부처님 오신날 |
| 제 11 見 동시구족 | 제 29 見 범부와 선지식 | 제 47 見神通(神通力) |
| 제 12 見 법맥? | 제 30 見 깨달음의 신호등 | 제 48 見 보시(기부) |
| 제 13 見 부처와 하룻밤을? | 제 31 見 다음생 | 제 49 見 정견(正見)을 치다 |
| 제 14 見 윈드서핑 | 제 32 見 종(鐘) | 제 50 見 업(욕심의 흐름) |
| 제 15 見 발효식품 | 제 33 見 스승을 찾아서 | 제 51 見 평온을 만나다 |
| 제 16 見 한 맛 | 제 34 見 대자유인의 길 | 제 52 見 화엄경 7행시 |
| 제 17 見 뒤바뀐 안목 | 제 35 見 집착을 놓다 | 제 53 見 평은 축제 |
| 제 18 見 평온한 남자 | 제 36 見 종교와 현실 |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점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문의 1899-9532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1899-9532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